

野口赫宙(張赫宙)의 『무사시 진영(武蔵陣屋)』과 「新羅王館 최후의 날(新羅王館最後の日)」론*

-고대 한반도 도래인의 형상화에 엮보이는 민족적 갈등-

金 鶴 童**

(e-mail : ulsasuca@hanmail.net)

目 次

머리말

1. 『무사시 진영』과 「新羅王館 최후의 날」의 시대·공간적 배경
 2. 『무사시 진영』과 고마족(高麗族)의 민족적 정체성
 3. 역사추리소설 「新羅王館 최후의 날(新羅王館最後の日)」
 4. 고마군(高麗郡) 및 신라향(新羅鄉)의 형상화와 사료적 근거
 5. 『무사시 진영』과 「新羅王館 최후의 날」에 투영된 작가적 입장
- 맺음말
-

머리말

노구치 가쿠추(野口赫宙)는 장혁주(張赫宙)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장은중(張恩重)¹⁾이 1952년 10월 일본에 귀화한 뒤 사용하기 시작한 또 다른 필명이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58-A00085)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일본근현대(재일조선인)문학 전공

1) 1905-1997, 1932년, 일제의 식민지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餓鬼道」가 『改造』의 현상공모에 입선하여 일본문단에 등단하였으며, 이후에도 얼마간은 일제에 대한 저항적 자세를 견지했으나, 일제 강점 말기에는 친일협력적인 작품을 주로 집필하였고, 자신의 생애적 열등의식과 조선의 아내에 대한 애증을 담아낸 자전적 작품도 많이 남겼다.

며, 귀화명은 노구치 미노루(野口稔)이다.

노구치 가쿠추는 장혁주라는 필명으로 집필한 일제 강점 말기의 친일작품²⁾으로 인하여 해방된 조국에 돌아올 엄두를 내지 못한 채, 패전으로 신음하는 일본민중의 참상을 그려내는 등³⁾ 새로운 작가적 모색을 시도하였다. 얼마 후 6·25가 발발하자 이에 대한 취재와 소설 창작⁴⁾으로 조국의 비참한 현실에 관심을 보이려는가 싶더니 이내 일본으로 귀화하였다. 귀화한 뒤에는 일본사회의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신음하는 민중의 삶을 담아내려는 노력⁵⁾을 기울였다.

그러나 일본인으로서의 작가적 삶을 모색하던 와중에도 조선의 생모 및 아내에 대한 애증을 담아낸 자전적 소설⁶⁾을 비롯하여, 장편 『무사시 진영(武蔵陣屋)』(1961. 10) 및 중편 「新羅王館 최후의 날(新羅王館最後の日)」(1961. 11)과 같은 고대 한반도 도래인(渡来人)을 소재로 한 작품을 집필함으로써, 자신의 가족에 대한 회한과 함께 귀화한 일본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의 갈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작품에 대한 평단의 언급이나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고대 한반도 도래인의 생존을 위한 지난한 삶을 그려내어 민족적 뿌리를 강조한 『무사시 진영』과 추리소설의 형태로 집필된 「新羅王館 최후의 날」의 시대·공간적 배경 및 내용을 분석하고, 작품에 투영된 귀화인으로서의 작가적 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칠년의 폭풍(七年の嵐)』(1941), 『和戰 어느 쪽도 不辭하다(和戰何れも辞せず)』(1942), 『浮沈(浮き沈み)』(1943), 『광야의 처녀(曠野の乙女)』(1941), 『開墾』(1943), 『행복한 신민(幸福の民)』(1943), 『이와모토 지원병(岩本志願兵)』(1944) 등이 있다.

3) 『고아들(孤兒たち)』(1946), 『젊은 여자(若い女)』(1948), 단편집 『사람의 선함과 악함(人の善さと悪さ)』(1947) 등이 있다.

4) 르포로는 「조국 조선으로 날아가다-제1보(祖国朝鮮に飛ぶ-第1報)」『毎日情報』(1951.9), 「고국의 산하(故国の山河)-제2보」『毎日情報』(1951.11), 「허덕이는 한국(喘ぐ韓国)」『明窓』(1951.7), 「조국 조선의 고뇌(祖国朝鮮の苦悩)」『地上』(1952.2), 「계속되는 한국의 불안(韓国の不安はつづく)」『地上』(1952.11) 등이 있고,

소설은 「부락의 남북전(部落の南北戦)」(1952), 「避難民」(1952), 「異국의 아내(異国の妻)」(1952), 「부산항의 파란 꽃(釜山港の青い花)」(1952), 「부산의 여간첩(釜山の女間諜)」(1952), 「눈(眼)」(1953), 『아-조선(嗚呼朝鮮)』(1952), 『無窮花』(1954) 등이 있다.

5) 대표적인 장편으로 『음지의 아이(ひかげの子)』(1956), 『아름다운 저항(美しい抵抗)』(1957), 『검은 지대(黒い地帯)』(1958), 『암병동(ガン病棟)』(1959), 『검은 대낮(黒い昼間)』(1959), 『호상의 불사조(湖上の不死鳥)』(1962)를 들 수 있다.

6) 『脅迫』(1953), 『편력의 조서(遍歴の調書)』(1954), 「戸籍謄本」(1954), 「다른 풍속의 남편(異俗の夫)」(1958), 『폭풍의 시(嵐の詩)』(1975)가 있다.

1. 『무사시 진영』과 「新羅王館 최후의 날」의 시대·공간적 배경

『무사시 진영(武藏陣屋)』(1961.10)은 8세기 무렵 일본의 무사시(武藏)⁷⁾에 정착한 고구려 후예들이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의 멸망이라는 혼란 속에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려는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⁸⁾에 대항하여 벌이는 세 차례의 전투를 중심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시기는 고구려 후예들이 왕족인 若光王을 따라 무사시에 정착(716년)한 지 6백여 년이 지난 1330-60년 무렵으로,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등장하여 세력을 확보한 뒤 요시노(吉野)로 난을 피한 고다이코(後醍醐)천황을 견제하기 위해 교토(京都)에 고묘(光明)천황을 세웠던, 이른바 南北朝시대라는 혼란기에 해당한다.

「新羅王館 최후의 날(新羅王館最後の日)」은 『무사시 진영』의 출간 직후인 1961년 11월 『宝石』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무사시에 정착한 신라 유민의 지배자 마립간과 그 주변 인물들의 몰락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가마쿠라 막부의 몰락으로 초래된 혼란이 아시카가 다카우지에 의해 평정된 직후의 불안정한 시기를 배경으로, 무사시에 정착한 이래 지속된 고구려 유민과의 대립과 新羅王館의 지배권을 둘러싼 암투 과정을 역사추리소설의 형태로 그려내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무사시 진영』과 「新羅王館 최후의 날」은 이상과 같이 매우 유사한 시·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공간적 배경의 범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新羅王館 최후의 날」의 공간적 배경이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와 그 주변지역으로 한정되는 반면, 『무사시 진영』의 고구려 후예들은 무사시를 벗어난 지역의 큰 전투에도 참가하고 있으므로, 공간적 배경 역시 이러한 전투지역을 따라 그 영역이 확대된다. 주요 전투는 아시카가 다카우지 세력의 본거지인 가마쿠라(鎌倉)와 무사시의 일대의 사쓰다야마(薩埵山) 및 가와무라(河村)城을 비롯하여, 가마쿠라를 점령하고 교토로 진격하는 과정 등을 그리고 있는데, 역사적 사실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新羅王館 최후의 날」이 무사시의 御房山 주변에 자리 잡은 新羅王館이라는 비교적 좁은 지역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으나, 중편소설이라는 제한된 지면에 新羅王館의 멸망을 추리소설의 형태로 담아내려는 본래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라촌 주변을 흐르고 있는 “야나기

7) 현재의 도쿄(東京)都 및 사이타마(埼玉)県の 대부분과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일부.

8) 1305-1358,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의 초대 쇼군(將軍).

세(柳瀬)강 건너에 고마(高麗)족이 살고 있다”⁹⁾는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新羅王館 최후의 날」의 공간적 배경이 『무사시 진영』의 고마향(高麗郷)과 인접해 있으며, 고구려와 신라계 후손의 피할 수 없는 운명적 관계를 짐작하게 만든다.

이상과 같이 『무사시 진영』과 「新羅王館 최후의 날」의 시대·공간적 배경의 유사성과 연속성, 그리고 내용의 중첩을 통해서 두 작품의 깊은 연관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 『무사시 진영』과 고마족(高麗族)의 민족적 정체성

2.1. 『무사시 진영』의 구성과 전개

『무사시 진영』의 주인공 고마 유키다카(高麗行高)는 南北朝의 대립이라는 전란 속에서 점차 세력이 약해져가는 南朝에 대한 지지를 고수한 채 2천여 명의 고마향(高麗郷) 주민을 이끌고 北朝의 아시카가 세력과 세 번에 걸친 큰 전투를 치른다. 작품은 각 전투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의 部로 설정하여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南朝의 유력한 세력인 닛타 요시마사(新田義貞)¹⁰⁾가 에치젠(越前)의 후지시마(藤島) 전투(1338)에서 아시카가에게 패하여 사망한 직후, 오슈(奥州)에서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기타바타케 아키이에(北畠顯家)¹¹⁾의 지원요청에 유키다카가 호응하여 참가한 첫 번째 전투를 그려내고 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아시카가의 본거지인 가마쿠라(鎌倉)를 점령하고 교토로 진격하던 유키다카는 어깨와 목에 중상을 입었고, 이번 거사의 중심인 아키이에가 전사함에 따라, 후일을 도모키로 하고 일시적으로 장악했던 가마쿠라에서 철수하여 무사시로 돌아온다.

제2부는 아시카가 다카우지와 불화로 가마쿠라에 내려온 동생 아시카가 다다요시(足利直義)로부터 형을 몰아내기 위한 거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받은 유키다카가 이에 응하면서 치르게 되는 전투를 중심으로 그려낸다. 유키다

9) 野口赫宙(1961.11) 「新羅王館最後の日」 『宝石』, p.20

10) ?~1338. 1335년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가 가마쿠라에서 반기를 들자 대군을 이끌고 내려왔으나 대패하였고, 이듬해에는 교토로 진격해오는 다카우지軍에게 효고(兵庫)에서 패했다. 천황의 아들 쓰네나리(恒良)·다카나가(尊良) 親王을 호위하여 호쿠리쿠(北陸)로 갔으나 1338년 에치젠(越前) 후지시마(藤島)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11) 1318-1338. 1338년 이즈미(和泉)의 이시즈(石津)에서 전사.

카는 지금까지 적으로 싸웠던 인물을 돕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180명의 휘하만을 거느린 채 사쓰다야마(薩埴山) 전투에 선발대로 참가한다. 그러나 다다요시의 소극적인 전투와 성급한 후퇴로 휘하 군사의 대부분을 잃고 7명만 간신히 살아 돌아온다.

제3부는 닛타 요시오키(新田義興)와 닛타 요시무네(新田義宗)가 주도하는 아시카가 막부의 토벌에 동참하였다가 패한 뒤 약간의 군사만을 이끌고 가와무라(河村)城에서 농성하며 끝까지 저항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결국 유키다카는 휘하의 군사 전부와 동생 다카히로(高広)마저 잃고 혼자 살아남았으며, 고마족(高麗族)의 본거지인 고마향(高麗郷)도 적의 손에 들어가 폐허가 된다.

이상과 같이 『무사시 진영』에 묘사된 세 번의 전투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전개되고 있다 하겠으나, 섬세하고 박진감 넘치는 전투 장면과 주인공 유키다카의 민족적 갈등으로 고뇌하는 모습은 작가적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2. 고마향(高麗郷)의 존속방법을 둘러싼 신·구세대의 갈등

『무사시 진영』은 고마족의 젊은 지도자이자 주인공 유키다카의 호전적인 태도와 그가 치르는 전투를 중심으로 그려내고 있으나, 부친인 유키스미(行純)는 수양도장인 다문방(多門房)에서 기도에 전념하며 그의 아들과 고마(高麗) 일족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여러 차례 호소한다.

선친은 임종에 즈음하여 ‘고마가(高麗家)의 혈통을 이어가야한다. (중략) 이를 위해서는 구석으로 내몰려 너무도 보잘 것 없고 불안이 엄습해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중략) 우리들은 어떤 난세라 하더라도 어떠한 권력의 학대가 있더라도 굴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합니다. 전쟁에는 휘말려들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 말입니다.¹²⁾

이와 같은 유키스미의 간절한 호소는 그의 4대 조상이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의 겐지(源氏)家の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맺게 된 인연 때문에, 막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닛타(新田)家の 토벌에 고마족을 이끌고 참가했다가 두 동생을 잃은 아픔에서 온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닛타家が 아시카가와 반목하게 되면서 전란이 일어났고, 아들인 유키다카를 필두로 하는 고마족의 젊은이들이 닛타家に 합류하여 아시카가가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심각한 불안에 휩싸인다. 즉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전

12) 野口赫宙(1961) 『武藏陣屋』, 雪華社, p.29

란에 휘말림으로써 직면하게 될 멸족의 위험을 경계한 것이다.

그러나 유키다카를 비롯한 고마족 젊은이들의 생각은 달랐다. 강하게 보이는 아시카가에 붙어서 고마향의 영지를 노리는 무리들을 징벌하고 “고마족의 깃발을 드높이 휘날릴 기회”¹³⁾를 놓쳐서는 안 되며, 현재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적과도 협력해야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

그렇지만 고마족 신·구세대 간의 이와 같은 갈등은 고려향의 보존을 둘러싼 방법론적인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그 바탕을 이루는 혈통에 대한 보존의식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유키스미는 전란으로 두 동생을 잃은 노파심에서 소극적인 생존전략을 호소한 반면에, 유키다카는 젊은 혈기를 앞세워 적극적인 방법으로 종족의 보존을 꾀하고자 했던 것이다.

『무사시 진영』에 묘사된 이와 같은 신·구세대의 갈등은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속성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 차례 멸족의 위기에 처하면서도 그 명맥을 유지해온 투쟁의 원동력이자 고마족의 생명력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2.3. 고마 유키다카(高麗行高)의 내면에 잠재된 혈통의식의 실체

유키다카는 자신이 속한 고마족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면서도 야마토(大和)인의 나라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라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전투에 임한 유키다카는 적장으로부터 ‘개반장(外蕃人)’이라는 말을 듣고 심각한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에 빠진다.

(전략) 蠻人이든 外蕃이든 같은 말이다. 유키다카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머릿속의 피가 완전히 빠져나갔다. 허무하고 슬프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고독이었다. 그것은 업신여긴다거나 멸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분이었다. (중략)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묘한 기분에 빠졌다. (하략)¹⁴⁾

‘外蕃人’이라는 한마디에 스스로의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있는 유키다카의 심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야마토에 살고 있다는 주인의식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전투에 임했지만, 야마토인들로부터 남의 문제에 끼어드는 ‘외국의 야만인’ 취급을 받게 되자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유키다카가 임한 전투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서 ‘外蕃人’으로 멸시당할수록 더욱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여 스스로의 권익을 찾아야하는 것이었지

13) 『武藏陣屋』, pp.30,31

14) 『武藏陣屋』, p.94

만, 그의 내면에 잠재 되어 있는 열등의식은 스스로의 혈통을 부정하게 만든다.

유키다카는 일족의 체내에 흐르고 있는 피는 더 이상 고구려의 피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싶었다. 유키다카의 집안은 고구려인의 종가로서 다른 종족과의 결혼을 가능한 한 피해왔지만, 다른 집안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예조(蝦夷)나 야마토인과 맺어져 있었다. 부친인 유키스미 역시 지금은 순수한 고구려인이 아니었다.¹⁵⁾

유키다카의 이러한 생각은 자신의 5대 조상 때부터 야마토인과 결혼하여 피가 섞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토대를 둔 것으로, 외부의 사람과 이야기 할 때도 “저의 피 속에는 아주 적은 양의 고마(高麗)밖에 전해지지 않고 있다”¹⁶⁾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유키다카의 반응은 차별받지 않고 주변의 야마토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살고 싶다는 내면의 본능적인 욕구가 표출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유키다카는 거듭된 전투로 휘하의 군졸이 거의 절멸할 위기에 몰리자 자신의 아내가 자식들을 데리고 무사히 피난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종족유지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인다.

허나, 혹시 잘못되어 모두 죽었다 해도 할 수 없다. 내가 또 낳으면 되는 것이고, 동생인 다카히로(高広)도 살아 있다. 어디엔가는 고마족의 피가 남아 있을 것이다.¹⁷⁾

동생인 다카히로 역시 전사하고 말았으므로 이와 같은 유키다카의 독백은 실제 상황과 관계없는 자신의 바람에 불과한 것이지만, 부친의 얼굴을 떠올리고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족의 피는 이어질 겁니다”¹⁸⁾라고 외치는 장면을 통해 혈통의 존속에 대한 집착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결국 유키다카의 이방인의식과 자신의 혈통에 대한 부정은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고마족 의식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오히려 그의 민족적 혈통의식의 뿌리 깊음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작품의 대단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종족의 혈통을 유지해야 한다면 부친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의 인도에 따라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불태우는 장면으로 맺고 있는 것이다.

15) 『武藏陣屋』, p.30

16) 『武藏陣屋』, p.19

17) 『武藏陣屋』, p.286

18) 『武藏陣屋』, p.286

3. 역사추리소설 「新羅王館 최후의 날(新羅王館最後の日)」

「新羅王館 최후의 날」은 무사시에 자리 잡고 있던 신라후예의 집단 거주지 신라촌(新羅木村)의 멸망에 이르는 과정을 소재로 삼은 역사소설로서, 지배세력 간의 암투를 추리소설 형식으로 그려내어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려한 작품이다. 그러므로 중편소설이라는 지면상의 제약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무사시 진영』에서 확인되는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집착과 회의, 현지 야마토인들과의 갈등 등은 거의 묘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작품은 고구려인의 집단 거주지인 고마향(高麗鄉)과의 역사적인 원한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관계로, 수적으로 열세였던 신라계 후예들의 종족보존을 위한 험난한 삶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히 그려낸다. 그러나 新羅王館에 불을 지르고 교토로 떠나는 주인공 요시미쓰(義光)의 행동을 통하여 신라인의 명맥을 이어가기보다는 일본인으로 동화해 살겠다는 의지를 담아냄으로써, 『무사시 진영』에 엿보이던 민족 정체성의 추구라는 집필의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3.1. 역사 소설로서의 특징

「新羅王館 최후의 날」의 도입부에는 신라의 마립간 일행이 지토(持統)천황 원년(678)에 무사시에 정착하게 된 과정¹⁹⁾을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여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이들 신라후예들의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거의 같은 시기에 정착한 고구려후예들과의 갈등을 그려냄으로써 이들과의 관계가 사건에 미칠 영향을 암시하고 있다.

“복수입니다. 우리 신라 일족을 알뜰게 생각하고 있는 무리의 소행이 틀림 없습니다. 히자오레(膝折れ)에서 미조누마(溝沼) 일대를 살살이 뒤져 늪 근처에서 일곱 명의 도망친 무사가 숨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패잔 무사들이야말로 우리 신라향민(新羅鄉民)이 6백 5십년간 두려움에 떨던 고마향(高麗鄉)의 인간입니다.”²⁰⁾

그리고 『무사시 진영』에서 활약하던 고구려 후예들의 몰락한 이후의 모습

19) 「新羅王館最後の日」 『宝石』, p.17.; 작품의 내용과 역사적 사료의 비교검토는 본고의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시도하였다.

20) 「新羅王館最後の日」 『宝石』, p.18

을 그려내고 있어서 두 작품의 줄거리의 연속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지난 쇼헤이(正平) 7년(1352) 윤2월, 고테사시하라(小手指原) 전투에서 패한 닛타족(新田族)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아시카가(足利) 장군(將軍)의 수색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고마족(高麗族) 일당에 틀림없습니다. 장군(將軍) 편을 든 우리 신라 일족을 증오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당연히 그 복수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 때는 우리 일족(一党)은 물론이요 향민(鄉民) 3천이 모두 일어나 고마족을 토벌할 각오입니다.²¹⁾

고테사시하라 전투는 『무사시 진영』에 묘사된 세 번의 전투 중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중요한 전투이자, 닛타 요시오키(新田義興)와 요시무네(義宗)가 주도하는 아시카가 막부 토벌의 선발대로 나섰던 유키다카 일행의 완전한 몰락을 초래한 전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新羅王館 최후의 날」에 보이는 위와 같은 내용은 『무사시 진영』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며, 동일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新羅王館 최후의 날」에서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는 무사시의 고구려와 신라계 후손들의 대립에 대해 『무사시 진영』에서는 전혀 묘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사시에 신라인이 정착해 살고 있다는 언급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고구려 후손의 집단거주지로서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고마군(高麗郡)²²⁾에 착목한 작가가 『무사시 진영』을 통해 그 선조들의 삶의 투쟁을 먼저 그려낸 뒤, 고구려 유민들과 거의 같은 시기에 정착하였으나 그 행적이 묘연한 신라후예들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新羅王館 최후의 날」을 집필한 결과로 보인다.

3.2. 추리소설에 대한 작가의 관심과 구성상의 특징

「新羅王館 최후의 날」의 시대·공간적 배경은 『무사시 진영』과 마찬가지로 남북조시대와 무로마치 초기의 혼전을 거듭하던 무사시로 설정되어 있지만, 작품의 주된 목적은 신라향의 마립간 요시후쿠(義福)와 그 측근들의 의문의 죽음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구조를 추리소설의 형태로 완성하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노구치 가쿠추의 추리소설에 대한 관심은 1959년에 출간한 『검은 대낮(黒い昼間)』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이후에도 많은 추리소설을 발표하였는데, 「新羅王館 최후의 날」 역시 이러한 작가적 관심을 반영한 작품으로 보인다.

21) 「新羅王館最後の日」『宝石』, p.18

22) 현재의 히다카(日高市)

고구려와 신라계 후손의 대립이라는 역사적 배경은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살인범에 대한 추리를 어렵게 만드는 효과적인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하겠는데, 이와 같은 양 진영의 대립은 8세기 무렵 무사시에 정착한 이래 수적으로 우세한 고구려후예들이 신라후예들을 괴롭혀왔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괴롭힘은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킴으로써 조국을 등지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원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묘사된다.

그 중에서도 제일 숫자가 적은 신라인은 고구려인과 백제인 쌍방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양국 모두 모국이 신라에 의해 멸망당했다는 원한이 있었기 때문이다.²³⁾

신라의 후예들은 이와 같은 괴로운 처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아시카가 세력을 돕는 것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고구려는 아시카가에 대항하는 세력에 가담함으로써 신라와 고구려계 후예들의 대립은 심화된다. 그리고 이들 양 세력의 싸움이 아시카가 측의 승리로 끝나자 고구려 후손들은 지리멸렬 흩어지고 만다. 그런데 양 진영의 갈등이 종식될 무렵에 신라의 마립간 요시후쿠(義福)와 측근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함으로써 그 배후에 고구려 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그러므로 「新羅王館 最後の日」의 주인공이자 마지막 마립간이 되는 요시미쓰(義光)는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고구려계 잔당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는다. 그러나 신라계 내부 지배층의 한사람인 아직기가 범인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해결되자, 요시미쓰는 자신이 직접 新羅王館에 불을 지른 뒤 교토로 떠난다.

그런데 작품의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해설이 첨부되어 있다.

세상일은 가능하면 냉정하게 자신의 신변에서부터 살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분한 나머지 엉뚱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 이 이야기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먼 옛날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²⁴⁾

작품 소개의 성격을 지닌 이 글은 작가의 말이라기보다는 잡지사 편집 관계자의 코멘트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먼 과거 역사의 이색적인 사건을 추리소설의 형태로 완성하려는 의도를 확인해 볼 수

23) 「新羅王館最後の日」『宝石』, p.20

24) 「新羅王館最後の日」『宝石』, p.17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잡지사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역사적인 사실에 가탁하여 일본에 정착한 한반도 도래인의 존재를 부각시키려한 작가적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상업적이고 타자적인 코멘트를 작품의 서두에 싣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4. 고마군(高麗郡) 및 신라향(新羅鄉)의 형상화와 사료적 근거

4.1. 『무사시 진영』의 고마군(高麗郡)

『무사시 진영』의 주인공인 고마 유키다카(高麗行高)는 나라(奈良)시대에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무사시(武蔵)에 정착하여 고마군(高麗郡)을 개척한 약광왕(若光王)의 제32대 후손으로 등장한다. 19세의 청년인 유키다카는 부친 유키스미(行純)의 뒤를 이은 고마관(高麗館)의 주인으로서 동족 2천여 명을 통솔하고 있으며, 양친 및 두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작품에서 소재로 삼고 있는 고마족(高麗族)의 존재에 관한 기록은 『続日本紀』 靈龜 2년(716) 5월 条에서 확인된다.

스루가, 가이, 사가미, 가즈사, 시모사, 히타치, 시모쓰케 7국의 고려인 1799 명을 무사시국으로 이주시켜 처음으로 고마군을 두었다.

(駿河、甲斐、相模、上総、下総、常陸、下野七国の高麗人千七百九十九人を以て武蔵国に遷し、始めて高麗郡を置く)²⁵⁾

고구려 유민집단을 이끌고 정착한 若光王에 대해서는 『続日本紀』 大宝 3년(705) 4월 条에 “從五位下高麗若光에 王의 姓을 내리다(從五位下高麗若光に王(こしき)の姓を賜う)”²⁶⁾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高麗郡의 영역 내에 건립된 高麗神社의 祭神으로 若光王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이 뒷받침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高麗神社의 宮司(신관)직은 지금도 高麗家の 직계 후손이 맡고 있다.

한편, 『무사시 진영』의 주인공 및 주변인물과 역사적 배경 등의 설정에 대해서는 ‘후기’에서 작가 자신이 직접 밝히고 있다.

高麗家の 계보와 히타카초(日高町)²⁷⁾ 향토사 연구시리즈를 참고하였습니다.

25) 金達寿(1986) 「高麗王若光と高麗神社」 『古代朝鮮と日本文化』, 講談社學術文庫, p.72

26) 위의 책, 「高麗王若光と高麗神社」 『古代朝鮮と日本文化』, p.71

27) 나라(奈良)시대인 716년 고마(高麗)郡 설치. 1878년 사이타마(埼玉)県 이르마(入間)郡에 편입. 현

이들 지방 향토사가의 연구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컸습니다.²⁸⁾

이 뿐만이 아니라 주인공 유키다카의 직계 후손인 고마 히로시게(高麗博茂)씨가 작품의 무대가 되는 지역의 안내를 해주었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기본적인 줄거리가 역사적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続日本記』에 의해 高麗郡과 若光王의 존재가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며, 이후의 역사적 궤적은 히타카초 향토사 연구시리즈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若光王을 모신 신사와 이를 지켜온 高麗家 宮司의 증언을 통해서도 高麗族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확인해 보았듯이 『무사시 진영』은 비교적 명백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집필된 역사소설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2. 「新羅王館 최후의 날」의 신라향(新羅郷)

「新羅王館 최후의 날」에서는 신라 유민이 무사시에 정착하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마립간(麻立干)의 초대(初代)는 지토(持統)천황 원년(서기687년)에 교토에서 동쪽으로 내려와 이 땅에 도착했다. 한 사람의 각간(角干-大將)과 두 사람의 아지키(阿岐-副將)를 데리고 왔는데, 모두 이곳을 영주(永住)의 땅으로 정했다. 처음에는 御房山에 御殿을 세워 살았으나, 그로부터 650여년이 지나는 사이 어느 틈엔가 평지로 주거가 옮겨 왔다. 중신 집안의 지위는 세습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으며, 마립간의 관(館)을 수호하고 있다.²⁹⁾

마립간은 신라의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므로 내용상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말하는 마립간이란 나라(奈良)에 와 있던 전승국 신라의 왕자를 말하는 것으로, 고국에서의 왕위 계승 다툼에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행과 함께 무사시에 정착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음³⁰⁾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라 유민을 지배해온 그의 자손들 역시 마립간으로 불린다.

또한 작품은 신라향의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한다.

당시의 동국(東国)에는 신라와 백제, 그리고 고구려 이민이 상당수 들어와

제의 히다카(日高)市 지역.

28) 「あとがき」 『武蔵陣屋』, p.303

29) 「新羅王館最後の日」 『宝石』, p.17

30) 「新羅王館最後の日」 『宝石』, p.20

있었는데, 이들이 뒤섞여 모국의 투쟁을 이어받은 형태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중략) 이에 애를 먹은 야마토(大和)조정은 겐쇼(元正)천황 靈龜2년(서기 716년)에 각각의 민족 별로 지역을 정해 주어 거주지를 분리시켰던 것이다.³¹⁾

삼국의 후예들을 분리 정착시켰다는 서기 716년의 기록은 앞에서 언급한 『続日本紀』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 문헌에는 고구려인 1799인을 무사시국(武藏国)으로 이주시켰다는 내용만 있을 뿐, 백제와 신라의 후예들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무사시에 신라군(新羅郡)을 두었다는 사실은 『続日本紀』의 다른 기록에서 확인³²⁾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준닌(淳仁)천황 때인 758년의 일이다. 그러므로 작품에 언급된 신라향의 설치 연대와 차이가 있으나 이는 작가의 단순한 실수이거나 또 다른 사료를 참고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日本書紀』의 지토(持統)천황 원년(686) 4월조에 “투화한 신라의 승니 및 백성 남녀 22인을 무사시국(武藏国)에 살게 하였다.”³³⁾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어서, 신라 유민 역시 고구려 유민과 비슷한 시기에 무사시국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무사시 진영』의 경우에는 집필에 사용한 참고문헌 등을 ‘후기’에서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문예잡지 『宝石』에 실렸던 「新羅王館 최후의 날」의 경우는 그 소재의 근거를 밝히고 있는 문헌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 단언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新羅王館 최후의 날」이 『무사시 진영』의 출간 직후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작가가 참고한 자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작가는 『무사시 진영』을 집필함에 있어 “「参考太平記」를 참고로 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여기에서 부족한 점은 “신편무사시풍토기고(新編武藏風土記稿)에 의지하는 바가 컸다”³⁴⁾고 말하고 있으므로, 「新羅王館 최후의 날」에서 소재로 삼고 있는 新羅王館의 소멸에 관한 내용 역시 이들 자료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1) 「新羅王館最後の日」『宝石』, p.20

32) 『続日本紀』(1935.12), 新訂増補國史大系第2卷, 國史大系刊行會, p.254 ; (天平寶字2年8月) 癸亥 (24). 歸化新羅僧卅二人. 尼二人. 男十九人. 女廿一人. 移武藏國閑地. 於是. 始置新羅郡焉.

33) 田溶新(2005)『完譯日本書紀』, 一志社, p.566

34) 「あとがき」『武藏陣屋』, p.303

5. 『무사시 진영』과 「新羅王館 최후의 날」에 투영된 작가적 입장

노구치 가쿠추의 역사소설 『무사시 진영』과 「新羅王館 최후의 날」은 『아름다운 저항(美しい抵抗)』(1957), 『검은 지대(黒い地帯)』(1958), 『암병동(ガン病棟)』(1959), 『검은 대낮(黒い昼間)』(1959)과 같이 일본사회의 모순과 사회적 약자들을 그려내는데 열중하던 직후의 작품이며, 「망향의 살인(望郷の殺人)」(『探偵実話』, 1960.3-7), 「호상의 불사조(湖上の不死鳥)」(『探偵実話』, 1961.4-9)와 같은 대중적 탐정소설의 집필과 시기를 같이 하는 작품이다.

바꾸어 말하면, 작가의 조국과 관련된 문제나 자신의 성장과정을 소재로 한 자전적 작품의 집필에서 한걸음 물러나, 일본으로 귀화한 작가로서의 주인의식과 독자확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지니고 집필에 전념하던 시기에 고대 한반도 도래인을 소재로 한 『무사시 진영』과 「新羅王館 최후의 날」이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 도래인을 소재로 삼은 작가적 심정은 『무사시 진영』의 ‘후기’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본서의 주인공은 반(反)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입장에서 南朝 측에 가담하여 20년이라는 세월을 걸쳐 싸워서는 지고, 또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지는 비극을 반복하였습니다. 영지와 영민(領民)을 모두 잃고, 아시카가 측에 항복하여 겨우 집(家)만을 보전 받았습니다. 죽음에 임해서는 자손대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사는 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중략) 그러한 고뇌를 좀 더 농후하게 써넣을 수 있었다면 철학적인 분위기로 완성되지 않았을까하고, 필력의 부족함이랄까, 붓이 전투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³⁵⁾

노구치 가쿠추는 인용한 후기를 통해서 작품의 주인공이 “자손 대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사는 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 것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즉 주인공 유키다카의 ‘종족의 보존을 위해서는 일본의 토착세력인 야마토인들과의 대립을 피해야한다’는 내용의 유언에 담긴 그의 내면세계를 좀 더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그려내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후기의 내용에는 일본으로 귀화한 조선인 작가의 내면에 잠재된 민족적 갈등이 엿보이고 있으며,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는 민족의식을 드러내

35) 「あとがき」 『武蔵陣屋』, pp.301,302

어 일본인들과 대립하지 말라는 자신에 대한 다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작가의 부정적인 언급과는 달리 유키다카를 고뇌하게 만들었던 민족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차원의 형상화가 시도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작가적 노력은 『무사시 진영』의 주인공이자 고구려 후손인 유키다카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유키다카는 적장으로부터 계반정(外蕃人)이라는 민족차별적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전의를 상실한 채 깊은 고뇌에 빠지거나³⁶⁾, 자신의 혈통에는 이미 야마토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므로 더 이상 고구려의 후예가 아니라는 생각³⁷⁾을 가져보려 노력한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이 고구려의 후손이며 그 명맥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는 장면으로 작품은 막을 내린다.

이와 같이 작품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인공 유키다카의 정체성의 혼란과 이방인의식은 일본으로 귀화한 이후의 작가가 당면한 문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사시 진영』은 귀화한 일본인으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조선)인이라는 민족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내면의 갈등을 역사소설이라는 형태를 빌어 표출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新羅王館 최후의 날」은 1960년 무렵에 집필된 많은 추리소설과 맥락을 같이 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으나, 무사시에 정착한 한반도 후예들의 역사적인 삶을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으로 귀화한 작가의 내면의식이 반영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비록 자신이 일본으로 귀화하였지만 이 땅에는 고대로부터 한민족이 공존해왔다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의 행위 역시 과거 선조들의 행적과 크게 다를 바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작가적 노력은 귀화인이라는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맺음말

본고에서는 고대 한반도 도래인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그려낸 노구치 가쿠추(野口赫宙, 張赫宙)의 『무사시 진영(武藏陣屋)』(1961.10)과 「新羅王館 최후의 날(新羅王館最後の日)」(1961.11)의 시대·공간적 배경 및 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작품에 투영된 귀화인으로서의 작가적 의식을 고찰하였다.

36) 『武藏陣屋』, p.94

37) 『武藏陣屋』, p.30

『무사시 진영』은 일본의 무사시(武藏)에 정착한 고구려후예들이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의 몰락으로 초래된 남·북조시대의 혼란 속에서 종족의 보전을 위해 전개했던 치열한 싸움을 박진감 넘치게 그려낸 작품으로, 도래인(渡来人)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과 이방인의식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해 보았다.

「新羅王館 최후의 날」 역시 무사시를 터전으로 삼고 있던 신라인의 영지 신라촌(新羅木村)과 이를 다스리던 新羅王館의 멸망에 이르는 과정을 그려낸 역사소설로서, 지배세력 간의 암투를 추리소설 형식으로 형상화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려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무사시 진영』과 「新羅王館 최후의 날」이 조국과 관련된 문제나 자신의 성장과정을 소재로 한 자전적 작품의 집필에서 한걸음 물러나, 일본으로 귀화한 작가로서의 주인의식과 독자확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지니고 창작에 전념하던 시기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같은 작가적 행보는 가쿠치가 비록 일본으로 귀화하였지만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민족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본고에서 고찰한 두 작품은 이러한 갈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온 무사시의 히다카(日高) 지역이야말로 고구려 후예들이 정착했던 고마군(高麗郡)과 같은 곳이며, 일본으로 귀화한 자신의 행위 역시 과거 선조들의 행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도래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野口赫宙(1961.10) 『武藏陣屋』, 雪華社
- 野口赫宙(1961.11) 「新羅王館最後の日」 『宝石』
- 『続日本記』(1935.12), 新訂増補国史大系第2卷, 国史大系刊行会, p.254
- 『日本史総合年表』(2001), 吉川弘文館
- 『新編日本史辞典』(1990), 京大日本史辞典編纂会編、東京創元社
- 金達寿(1986) 「高麗王若光と高麗神社」 『古代朝鮮と日本文化』, 講談社学術文庫, p.71,72
- 김학동(2008) 『張赫宙의 일본어 작품과 민족』, 국학자료원, p.12
- 田溶新(2005) 『完訳日本書紀』, 一志社, p.566

要 旨

本稿では、古代朝鮮半島からの渡来人の生存のための戦いを描いた野口赫宙(張赫宙)の『武藏陣屋』(1961.10)と「新羅王館最後の日」(1961.11)の歴史的背景及び内容を検討分析し、作品に投影された帰化人としての作家の意識を考察した。

『武藏陣屋』は武蔵に定着した高句麗の後裔たちが鎌倉幕府の没落で齎された南北朝時代の混乱のなかで、種族の保全のために展開した熾烈な戦いを描き、また、渡来人として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混乱と異邦人意識を扱った作品であることが確認できた。

尚、「新羅王館最後の日」も武蔵を領地としていた新羅人の村(新羅木村)と、これを治めていた新羅王館の滅亡にいたる過程を描いた歴史小説であるが、支配層同士の争いを推理小説の形で形象化することで読者の興味を引き出そうとした作品である。

ところで、『武藏陣屋』と「新羅王館最後の日」が今までの祖国と関係した問題や自分の成長過程を素材とした自伝的作品の執筆から退いて、日本に帰化した作家としての主人意識と読者確保という現実的目標を掲げて創作に専念していた時期に発表されたことから注目される。

野口赫宙のこのような執筆傾向は、たとえ日本に帰化したとしても、作家自身の内面に抱えていた民族意識から自由でいらなかったことを物語るものであって、本稿で考察を試みた二つの作品はこのような葛藤の解消のための結果と言えよう。

キーワード：野口赫宙、張赫宙、武藏陣屋、新羅王館最後の日、高麗郡、
若光王、新羅木村

투 고 : 2009. 8. 31
1차 심사 : 2009. 9. 12
2차 심사 : 2009. 9. 26